

기념사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세계의 커다란 지주(支柱)였으며, 동반자였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극한 아픔에 처했을 때마다 한국불교는 그 아픔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 10월, 한국불교는 진정으로 아픈 역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신군부가 정통성과 정당성의 결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호도하고자 사회정화를 명목으로 우리의 교권을 침탈했던 것입니다. 3만이 넘는 군경이 새벽예불을 드리는 산사의 법당을 구둣발로 유린하고 아무런 죄도, 아무런 혐의도 없는 스님들과 신도들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엄청난 고문과 조작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한국불교는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스님들은 부패한 경제사범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매도에 실망하여 불교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국가권력의 남용’이었음을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무려 27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아니 한국불교 1,600여 년 역사에서 가장 아픈 이 기억을 우리는 ‘10·27법난’이라 부릅니다.

1,600여 년 역사에서 우리 한국불교는 많은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처음 이 땅에 불음이 닿았을 때 이차돈 같은 순교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침략에 스님들이 저항했다는 이유로 황룡사가 불타고 여러 곳의 스님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두 호란을 겪었을 때에도 승병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유수의 사찰이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억을 아픈 기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불교가 우리 민족과 함께 아픔을 공유한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27법난은 신군부의 정치적 야욕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이자 거대한 정신적 자산인 우리 한국불교가 처참하게 폄훼되고 능욕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픈 기억을 다시금 꺼내는 이유는 지난 2007년 국무총리가 10·27법난을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아직도 그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 피해의 규모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명예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법률이 제개정되고 명예회복과 관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10·27법난의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10·27법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속히 한국불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27법난은 우리 불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1970년대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처참했던 내분과 분규의 역사. 그것이 신군부가 감히 법난을 자행할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불자들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법에 근거하여 정정당당할 때 법난과 같은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10·27법난의 기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상이 모두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는 날까지 모두 함께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불교가 우리 역사 앞에,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떳떳해지는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0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